

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, 예산군·국제로타리3620지구와 함께 예당저수지 환경정화

윤 오세민 기자 | 승인 2025.04.09 11:13



▲ 예당저수지 환경정화활동에 나선 참석자들-한국농어촌공사제공

[충청타임즈]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(본부장 이민수)는 8일 예산군 예당저수지에서 예산군, 국제로타리3620지구(총재 한주희)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.

이날 활동에는 최재구 예산군수, 장순관 예산군의장, 한주희 총재, 이민수 충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하여 340여 명이 참석하여 수변부에 떠 있는 생활쓰레기 및 폐농약병 등을 수거했다.

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지난 해 8월 농어촌공사와 국제로타리3620지구가 체결한 녹색손길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천안 성성호수공원 환경정화, 아산 도고저수지 환경정화에 이어 세 번째 활동이다.

이번 활동에서는 예산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, 예당내수면어업계, 월남전참전유공자회에서도 힘을 보태 의미를 더했다.

이민수 본부장은 "예당저수지 환경정화활동을 위해 힘써주신 예산군과 국제로타리3620 지구 관계자, 그 외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"며 "저수지는 농업 용수공급이라는 고유의 기능에 더해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의 힐링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깨끗하고 맑은 저수지 환경조성과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"고 밝혔다. /내포 오세민기자 saeinn@cctimes.kr

저작권자 ©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오세민 기자